

'92년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업계획

黃仁善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 專務理事

I. 서 언

국가 전산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7년 4월 법정 민간단체로 발족된 우리 협회는 올해로 설립 5년째가 되고, 회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속에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협회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한 산업분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만 했고, 협회에 가입한 회원 역시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국내 H/W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성장을 보인 정보통신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선진 각국들 역시 이미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 판단, 이의 육성발전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지금까지 협회는 민과 관의 가교로서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보화 촉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우리의 사업환경과 정보화의 진전은 아직도 미흡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될 과제와 앞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난관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만 하더라도 우리 정보통신업계는 전기통신기 본법이나 사업법 등 민간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규의 개정으로 사업영역이 많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열악한 시장환경과 난맥상을 보인 국내의 경제상황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로 우리 업계 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 각오가 보다 새로워져야 하겠으며, 협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고, 민간사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경우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보호장벽을 쳐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속의 한국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하나가 되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협회는 지난 연말 설립근거법인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최근 업계의 총체적 지원과 의견집약이 가능하도록 가입번호를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전산망사업자외에 전산망 유지 및 보수사업자, 정보통신 S/W사업자, 정보처리사업자, 정보제공 및 DB사업자,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제조업자, 기타 전산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부 위탁업무를 비롯해 회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그림1 참조), 보다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제도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병행해 정부의 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DB),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산업부문별 지원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며, 각종 정보의 입수와 전파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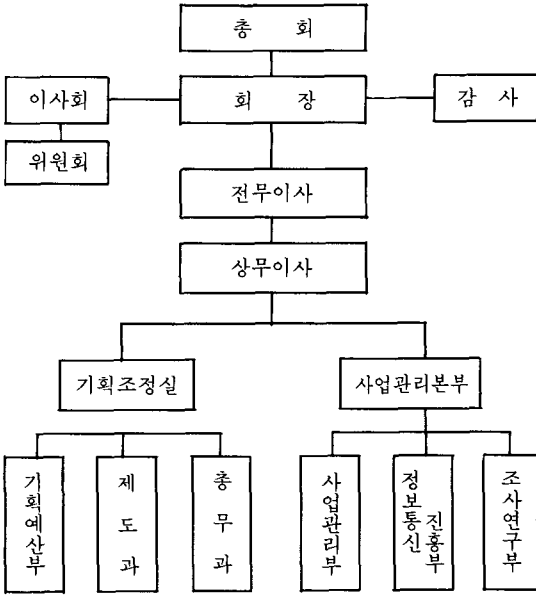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직도

활동과 기초통계 작성을 더욱 폭넓게 추진해 적기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며, 국제 교류협력 증진과 함께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아울러 수요확대를 도모하는 문제등이 바로 우리가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II. 정보통신사업 환경조성에 진력

1. DB산업 지원육성에 견인차 역할

올 한해동안 협회가 중점 추진하게될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이제 막 시작단계에 놓여 있는 국내 DB산업의 지원 육성에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DB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DB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DB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는 관련제도와 요금정책, 세제, 이용환경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함께 DB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의 DB관련 정책, 제도, 기술, 시장정보등을 중심으로 발간하는 계간지 「데이터베이스 월드」의 내용과 배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DB를 구축하고 검색하기 위한 기본 S/W의 개발 뿐만 아니라 통신프로토콜과 검색언어 등의 표준화가 시급하므로 이를 위한 연구용

역을 발주하고, 해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워크숍 개최등 표준화 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협회는 오는 9월경 미국·일본·프랑스 등지의 관계전문가를 초청, DB표준화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세미나와 함께 DB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인데, 아직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표준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각종 조사사업 체계적으로 수행

두번째로 정부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민간업계의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에 따른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 DB산업, S/W산업등의 분야별 실태조사와 정보통신산업인력 실태조사 및 이용자 조사등 각종 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본규모와 매출액 등 기업의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 사업내용, 서비스현황, 기술 및 운용 내용, 설비 및 기술인력 현황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금년 7월에 착수해 9월말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게 되는 DB산업 실태조사는 DB를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백여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DB 구축의 목적 및 특징, DB 기본사항, DB 관리내역, DB 투자액, DB사업 운영기술 및 행정적인 문제점등을 보강 조사, '92년판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6월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S/W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S/W개발 및 유통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게 될 S/W산업 실태조사는 3월까지 완료하고, 정보통신 산업인력 실태조사는 종업원 20인 이상되는 H/W 및 S/W업체, 부가통신사업체, 네트워크 구축 업체 등 약 6백여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직접 인터뷰조사, 금년말쯤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협회는 이용자성향, 여론, 의식, 욕구,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등 필요에 따라 제반 설문조사를 실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3. 집중적인 연구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셋째, 협회는 국가전산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정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발전방안연구, 광대역 지역정보통신망 기술동향분석, 새로운 정보처리기법에 관한 연구등 정보통신 각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발전방안연구는 정보문화 확산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정보화의 불균형문제를 최소화하고 균형있는 정보화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5월중 완료하고, 국내 광대역 지역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광대역 지역정보통신망 기술동향 분석과 새로운 정보처리기법에 관한 연구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밖에 건물의 지능화사업 및 업무·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게될 건물내 자동화사업 관련연구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무선 VAN에 관한 연구활동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4.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주는 사업 확대

넷제, 민간업체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90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CCPAK LINK(E-Mail)의 가입사와 메뉴를 보다 늘려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내외 정보통신관련 제반자료를 입수, 비치하여 회원사 임직원에게 개방하고 있는 정보통신자료실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또 정보통신관련 업체 및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EDI, DB, ISDN, LAN, 뉴미디어등과 관련된 신기술동향과 관계법령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설명회 및 정보통신 특별강좌도 수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비롯해 부가통신사업 등록업무, 민간 연구개발업체를 위한 S/W수요예보업무등 정부위탁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5. 대정부 건의등 법제사업 강화

다섯째, 민간업체의 권익을 대변하고, 건전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정부 건의등 법제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은 한마디로 불확실한 시장성과 기업의 경영기반 취약으로 기대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진출과 대의 시장개방은 이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니다.

이에 협회는 공정경쟁 보장장치 마련을 위해 민간인사를 전문 반영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회선이용상의 규제완화, 회선의 품질보장 및 요금인하,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 확대등 민간사업자의 권익대변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여론사항등은 각종 설문조사나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사업 진출에 따른 각종 이용약관을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관계당국에 건의함으로써 민간 VAN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유도함은 물론 이용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6. 국제 협력 및 교류 확대

여섯째, 국제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정보통신관련 정책과 기술 및 시장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과 정보입수 채널 확보를 위해 해외 유관기관 및 업체와의 상호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APEC 통신전문가회의와 PECC-3T(전기통신, 교통, 관광분야) 회의 및 국제표준관련 회의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한국측 입장을 대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Telecom Tokyo '92, X12/DISA EDI 총회등 국제행사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한·미 통신업계간 회의에도 민간업체 대표들을 파견, 국내 통신시장 현황과 정부의 시장개방 의지를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대외 통신시장 개방정책을 측면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7. 행사와 출판물 통한 홍보활동에 최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업은 대국민 정보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업계가 정책 및 제도환경 변화에 능동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출판물을 통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오는 6월 정보문화의 달에 개최할 '정보화사회 자유토론 광장' 행사는 지역 언론사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또 정부의 제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협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보통신정책 설명회'와 산·학·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당국자와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장등을 초청하는 합동간담회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는 체신부 주관하에 ETRI, 한국전산원과 함께 국가표준의 구현과 적용사례를 발표하는 '정보통신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될 이 행사는 이용자와 제조업자, 정보제공자, 망 운영자, 연구기관, 표준화 기구 및 단체등 정보통신 관련자 모두가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외의 정책이나 제도, 기술, 시장 정보등을 표

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도 회원의 사업발전과 정보통신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비정기간행물을 수시로 펴낼 계획입니다.

정기간행물로는 올해로 창간 5주년이 되는 협회지 「정보화사회」는 해가 거듭될 수록 업계와 학계는 물론 일반에서 까지 구독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그 내용은 물론 배포범위도 계속 넓혀나갈 것이며, DB산업 육성과 EDI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부터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월드」와 「EDI월드」의 제작도 독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기간행물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을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과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해설하는 「'92 전기통신법령 해설집」을 비롯해 급증하는 정보통신 용어에 대한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표준정보통신용어 해설집」과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역사, 관련법규 및 제도, 산업현황 및 전망등 국내 정보통신 현황을 소개할 수 있는 「'92 Korean Telecommunication」등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협회는 미국, 일본, 유럽등 정보통신 선진국의 각종 보고서나 기술자료등을 적기에 입수, 보급하는 한편, 세계 정보데이터 총람도 번역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협회가 올 한해 동안 수행할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나열했으나 정보통신 산업부문의 성장속도가 말해 주듯이 이들 업무외에도 여러가지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협회가 이를 앞장서 대변하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까.

때문에 협회는 금년부터 이같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사업분야별로 구성·운영해오던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개발위원회, 법제위원회, 업종별 위원회등 5개 위원회로 체제를 개편, 운영키로 했습니다.

특히 업종별 위원회는 산하에 회원의 사업내용과 특성에 따라 H/W, S/W, VAN, DB, EDI, SI등 산업분야별로 6개분과(연구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같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협회가 명실공히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국가의 정보화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포함한 산·학·연·관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올 한해도 협회는 정보통신 발전을 통한 고도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민·관의 가교로서, 또 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기관으로서 적극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활동에 각계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Ⅲ. 결 언

筆者紹介



黃 仁 善

1941年 4月 8日生

1965年 3月 조선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75年 3月~1980년 11月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통신기획장교

1980年 11月~1983年 3月 육군 제36사단 통신대대장

1983年 3月~1987年 2月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통신부문 신형장비도입계획)

1987年 2月~1989年 2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장

1989年 2月~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무이사

주관심분야: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각종 통계